

# 노인인구 많은 전남 17개군 폭염 가장 취약

### 광주, 65세 이상은 동구·5세 미만은 광산구가 가장 취약 환경부 폭염 취약성 지수 발표... 지역별 맞춤형 대책 추진

65세 이상 노인의 '폭염 취약성'(폭염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은 광주시 자치구 중 동구가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세 미만 아동의 폭염 취약성은 광산구가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노령인구가 많은 전북의 폭염 취약성이 가장 높았고 전남은 다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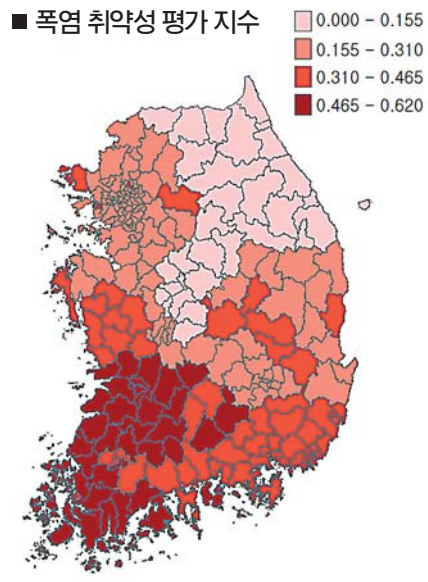
환경부는 지난 31일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8월 '폭염 취약성 지수'를 분석해 공개했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지자체들이 폭염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 조사했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폭염에 의한 열열 질환 발생과 대응 취약성 정도를 기초 지자체별로 상대적으로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기후노출(평균 온도), 민감도(고령 등 폭염 취약 연령대 비율), 적응능

력(인구당 의료기관·소방서·지역 내 총생산)을 수치화해 기후노출에 민감도를 더한 값에 적응 능력을 빼는 방법으로 산출했다. 그 수치가 높을수록 폭염 취약성이 높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은 총 인구, 65세 이상 인구,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등으로 구분했다. 해양성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수는 전국 지자체 중 최저값(제주도 0.000)부터 최고값(0.620)까지를 4단계로 나눴다. 총인구 부문에서 광주 자치구는 동구(0.41, 3단계)를 제외한 4개구(서구 0.51·남구 0.49·북구 0.58·광산구 0.55)가 4단계로 분류됐다. 65세 이상 인구 부문에서는 동구가 0.48로 가장 높았으며 남구 0.47, 북구 0.45, 서구 0.44, 광산구 0.41 순이었다. 5세 미만 아동 부문은 광산구 0.57, 북구 0.51, 남구 0.50, 서구 0.49, 동구 0.44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부문에서 전남은 17개군이 4단계로 나타났다. 고흥이 0.55로 가장 높았으며 담양·함평 0.54, 진도·강진 0.53 등이었다. 3단계는 목포시(0.46), 여수시(0.46), 순천시(0.45), 광양시(0.44), 화순군(0.43)이었다. 5세 미만

아동 부문은 광양시 0.57, 목포·무안 0.52, 여수·순천시 0.50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고흥으로 0.31이었다.

전국적으로 폭염 취약 총 인구 부문은 전주시 완산구(0.61), 65세 이상 인구 부문은 고창군·김제시(0.61), 5세 미만 아동 부문은 전주시 덕진구·군산시·완주군(0.59)이 높았다.

환경부는 이번에 공개한 지수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폭염대응 대책을 수립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기후노출(폭염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폭염에 민감한 연령 비율, 의료기관 수 등 대응능력 등을 고려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염 취약성 지수를 취약계층 방문 건강진단, 응급구급체계 운영, 행동요령 전파 등 폭염대책별 우선순위에 설정해 활용하면 폭염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각 항목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나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1 | 해질 19:36 | 달뜨기 22:14 | 달짐 09:24

8월 시작도 폭염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5°C 이상 올라 매우 덥겠다.

광주	맑음	26/38	보성	맑음	23/34
목포	맑음	26/35	순천	맑음	26/36
여수	맑음	27/34	영광	맑음	25/36
나주	맑음	24/38	진도	맑음	25/34
완도	맑음	26/34	전주	맑음	25/38
구례	맑음	23/37	군산	맑음	25/36
강진	맑음	24/35	남원	맑음	23/35
해남	맑음	24/35	흑산도	맑음	26/32
장성	맑음	24/3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먼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생황지수

경고: 식중독, 지외선,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07	04:55
	22:11	17:02
여수	05:30	11:35
	17:28	23:56

◇주간 날씨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	☀	☀	☀	☀	☀	☀
26/37	26/37	26/37	26/37	26/36	26/36	26/35

## 근로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월 14만원 추가 지원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빈곤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월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 어디가 가장 덥나? 광주지방기상청과 공동으로 '도시 용도구역별 기온 비교관측 조사'에 나선 광주대학교 건축공학 전공 학생들이 지난 31일 동구 금남로 2가에서 이동식 기온관측장비를 설치한 뒤 기온을 비교·측정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치안행정 모든 과정 주민참여 늘리겠다"

최관호 신임 전남경찰청장 취임

최관호(54·간부후보 39기·사진) 제30대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지난 31일 취임식에서 "체복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경찰의 힘은 주민의 지지와 협력으로부터 나오고, 공동체 일원으로 주민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치안행정 모든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지역 공동체가 치안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또 "조직 내부적으로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을 향한 경찰개혁을 완수하



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겠다"면서 "더 나은 경찰, 더 좋은 치안을 위한 차원 더 성장해야 하는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찰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되고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곡성 출신인 최 청장은 간부후보 39기 출신으로 경찰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제1 부장, 전북청 제2 부장,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담당 등을 지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인권위 "피의자 동의 없이 사건 처분 우편 통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동의 없이 사건 처분결과를 우편 통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2016년 범죄 혐의로 한 검찰지청에서 조

사를 받던 A씨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자권 처분 결과 통지가 집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가족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남구 입암마을 진입로 3년 갈등 풀렸다

### 경사로 낮추고 선형 변경 권익위 중재로 민원 해결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됐던 광주시 남구 입암마을의 새 진입로가 안전하게 바뀐다.

지난 3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30일 광주시 남구 중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새로 개설되는 입암마을 진입로 경사를 낮추고 경로당 앞도로로 연결해달라는 주민 63명의 민원을 해결했다.

입암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그동안 마을 진입로를 보행로로 이용해왔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일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을 마련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주민들은 새 진입로의 경사가 가파르고 큰 도로와 연결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마을 진입로가 아파트 공사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지난해 4월에는 마을 주민이 공사용 트럭을 피하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마을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새 길을 안전하게 바꿔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LH는 진·출입로 설계가 관련 규정을 따랐고 경로당 앞 도로를 불법으로 조성된 도로였다는 점을 들어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주민들은 지난 5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날 중재 끝에 새 진입로의 경사를 낮추고 도로 시작지점을 경로당 앞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이끌어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입암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생활현장을 찾아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진입로로 공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함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 국가에서 인증한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장 볼때마다 확인하는 습관! 꼼꼼히 살펴보세요  
확인 한번으로 우리 가족의 식탁이 한층 더 건강해집니다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안전관리인증**  
HACCP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공식품**  
(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표시**  
(PGI)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명인**  
(GRAND MASTER)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LOW CARBON)  
농림축산식품부